**국제 성경 공부**
4월 6일 강의

#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

***핵심 구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기 위해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
***히브리서 9:24***

***선택한 성구:***
***히브리서 9장 23~28절***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서신은 1세기 전환기에 교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분명히 아무도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44-48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고 이 피조 세계의 일부가 아닌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속을 영원히 확보하셨습니다. 옛 제도 아래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재가

의식의 불순물로부터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죄악된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줄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11-14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이해하여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골로새서 1:24).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교회와 세상 모두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은 하나님의 마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또한 성경은 에덴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희생적 죽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22-23

우리의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그분의 제자인 사람들은 신실하다면 하늘의 상을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순종하고 의의 원칙을 내면화함으로써 지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해의 사역을 맡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17-20).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화해의 기초이며,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운영되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통치하는 미래의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6).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희생적인 노력은 나중에 더 큰 기회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는 오늘 동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